

## 박원호 목사, 오늘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지난 수요일(13일)  
치악산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NKPC (미주 한인장로교  
총회)에 참석한 박원호목사가  
다른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창립 19주년을 한 주 앞둔 오늘은 주님의교회의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날이다. 9개월간의 담임목사 공백을 매듭짓고 박원호 목사를 제4대 담임목사로 하는 부임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 당회에서 결성된 청빙위원회(위원장:권 오승장로)가 청빙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새로운 담임목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시에 교우들은 중보기도모임, 목요 기도회 등에서 이를 위해 열심

히 기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지난 4월 7일 당회, 18일 제직회, 29일 공동의회를 거쳐 박원호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담임목사직을 수락한 박원호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와 미국 한인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역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왔다. 이제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될 새로운 사역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 1부 예배를 시작으로 부임하는 박원호 목사는 주일 설교를 통해 성도들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며 24일, 창립19주년기념주일과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인도하고 창립기념음악회와 임직자수련회 등

의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창립기념주일과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급히 귀국한 담임목사는 7월 초 다시 미국에 돌아가 그곳에서의 사역 정리하고 일정시간의 피정을 갖게 될 예정이다.

주님이 주인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는 주님의교회는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

“이제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될 새로운 사역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에 서있게 되었다.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할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김현령목사

### 열다섯 아기 천사에게 세례 베풀어

지난 6월 3일(주일) 오후 4시, 중예배실에서 15명의 아기들에게 유아세례가 베풀어 졌다. 세례예배는 세례 연주팀의 첼로 4중주 연주로 시작하여, 4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김도목 은퇴장로의 기도, 정희성목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4주간 교육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이어졌다.

(4면에 계속)

로 템 나 무

###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목말라 하는 나에게..

회사사람이 나한테 책을 건네 줬다.

조이로우슨의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이라는 책이다.

나에게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어려운 책이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신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자신 보청기를 통해서만 흐릿하게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줄곧 상상해오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 하는 위험한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추측하는 하는 것도 죄라고 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참으로 부러웠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가졌다. 하나님이 마음의 확신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깨끗이 비우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

단지 우리는 듣지 못할 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왜 나는 아직 몰랐을까?

아주 사소한 것 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 나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셨다.

무사히 출산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꾸준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선희 (4교구 믿음구역)

※믿음 구역은 청각장애우들 구역입니다

### ※어와나클럽 사진전시※

지난 6월6일 어와나클럽 120여명이 평택이충체육관에서 진행된 게임즈에 참여했다. 총 6팀이 참석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사진은 1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

주님의교회 창립 19주년 / 창립주일 6월 24일

##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

I 담임목사 부임 예배 (6월 17일,주일) 1~4부

II 호산나 찬양대 주관 창립기념음악회 (6월20일,수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III 장로,집사,권사 임직식(6월 24일,주일) 4부예배

IV God's Image(재미교포 찬양단)와 함께하는 찬양축제(6월 30일,토 오후 7시) 대예배실

예배의 현장 (영어예배 5월 27일)

## 조약돌의 노래 민 12:1-3

노자의 스승이었던 상창은 온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가 빠지면 혀가 남느니라. 알겠느냐?” 강한 정치, 권력, 군사, 돈 등 이빨처럼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은 빠져 사라지지만 혀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온유(프라우테스)의 의미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성질이 주인의 손길에 의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한다. 구약에서 온유(아나우)는 원래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그 의미가 바뀌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제 몇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성품이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온유는 온순과 같지 않다. 온순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순하고, 또 언제나 순종적이다. 그러나 온유는 다르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지만 여전히 강하다. 단단하다. 한결같은 강한 힘이 그 안에 고요하게 담겨져 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충직하며 성실하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자신을 일컬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자화자찬인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닌 신앙고백이었다. 자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온유함이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가는 온유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갈고 다듬으셨다. 거친 광야에서 부서지고, 낮아지게 하셨다. 한 성깔을 바람으로 다듬으시고, 한 혈기를 고운 모래로 깎으시며 그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

이다.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온유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았다. 온유함은 조약돌이다. 아무 돌멩이 중 하나가 아니라, 다듬어진 돌이고, 손에 쥐기에 부드럽고, 따스한 별에 의해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어 만질 만하다. 위협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돌은 단단하다. 강한 힘이 있다. 이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들려서 물매에 채워 던져지자 거인 골리앗이 무너졌다. 손에 쥐기 편한 부드러움이 있지만, 햇볕과 몸의 온도로 적당하게 따스함을 가지고 있지만, 거인을 향해 날아가는 돌은 두개골의 뼈를 부수는 힘과 단단함을 드러냈다. 이것이 온유이다. 이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온유함이다. 우리 마음에 두신 온유의 실재이다.

처세의 한 방법이거나, 마음의 느낌 중의 하나가 아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양육장식의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 같고,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의 세상 같은 것 같다. 온유함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은 거인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며 약속 있는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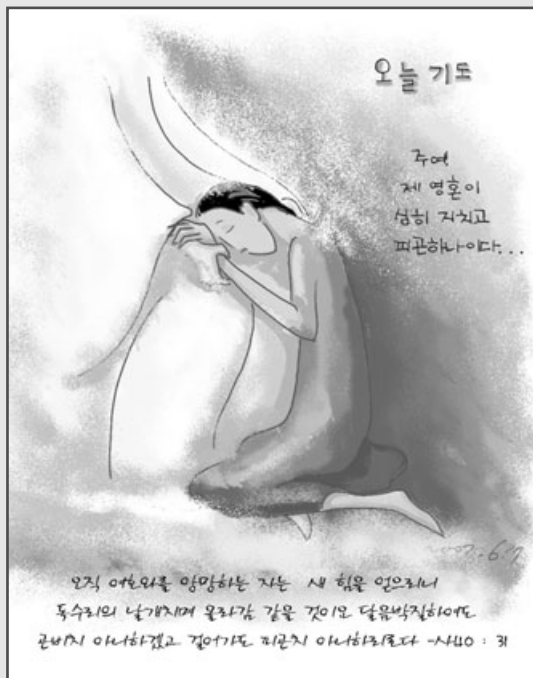
이제 하나님의 온유함이 모세를 거치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이 안, 마음에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와 같이 고백하자.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에서도 온유하자. 모세의 태도가 도움이 된다. 일단 모세는 자기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온유함을 믿었다. 두 번째 모세는 말을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보다 성

급하게 먼저 뛰어나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를 기다렸다. 네 번째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실 것을 기도했다.

우리도 모세처럼 고백하자.

“내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힘입니다.”

설교: 정요섭 목사



나의/신앙/이야기

## 제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78년에 낳은 둘째 딸의 이름을 스님이 지어주었을 만큼 교회와는 인연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면목동에 살고 있었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하던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의 구원을 위해 2년간 기도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별다른 저항감없이 교회에 출석하던 저에게는 당시 작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의 '개'였습니다. 그 개는 주인에게만 충견인, 제 큰 딸의 다리를 문 전력이 있고, 온갖 집안의 동물들을 물어뜯는 사나운 개였습니다. 묶여 있긴 했지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는 개는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시집오기 전부터 10년 이상 키워온 그 개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습니다.

마침 둘째 딸의 돌잔치를 앞두고, 저는 하나님께 '돌잔치에 손님들이 오기 전에 저 개를...' 라며 다소 어이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드린 바로 다음 날,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 개를 단돈 '1만 5천원'에, '의정부의 과수원으로 데려가겠다'는 개장수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가는 개의 울부짖는 소리가 찾아질 무렵, 주인집 아주머니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에 홀린 것 같다'면서 개장수를 황급히 쫓아갔고, 이튿날 의정부 과수원까지 살살이 뒤졌지만, 개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저는 무척 놀랍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저에게 합당한, 무엇보다 직접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시작으로, 서서히 보다 확고한 믿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낳은 딸에게는 성경 속 인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후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세 딸들과 매주 교회를 가는 여정은 너무나 가슴벅차고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봉사를 하러 교회로 발길을 옮길 때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에 살짝 무섭고 떨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

잡고,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설사 제 뜻대로 기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합당한 응답을 해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알게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고정옥 권사 (2-8)

## 성도님들의 신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시는 분은 hamnews200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글함글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원고 내용: 작은 사건이나 생각속에서 발견한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A4 1/4 분량

문의: 김기용 안수집사 010.9600.2664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2:1-2

주님의교회 창립 19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 그간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로 새로운 목사님의 부임을 기다려왔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길 기도해 왔다. 새로 오신 박원호 목사님의 부임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소망이 만나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실임을 믿는다. 오랜 시간 담임목사의 부임을 기다려온 성도들은 오늘 드디어 예배 시간을 통해 목사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 담임목사 인사

주님!

어린아이라 어디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린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지만,  
주님의 입을 바라보며 또한 이곳에 섰습니다.

어린 아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일러주실 것을 믿기에  
오히려 신나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제 기도만은 소중히 여겨주셨고,  
작은 소망에도 큰 손길로 답해주셨습니다.

그저 작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주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굳이 더 있느냐고 물으시면,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울며  
마음껏 뛰어 놀고 싶은 것입니다.



박원호 목사

### 성도들의 환영 인사 ①-김자자 권사



귀한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역자와 성도 모두 합심해서 주님의교회를 기쁘게 이끌어갈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그 기도

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뜻에 합당한 목사님이 아닌, 주님의 뜻

과 계획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박원호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며 교육과 선교와 봉사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만큼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원호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 성도들의 환영 인사 ②-김학원 안수집사



목사님! 만나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담임목사님이 없지냈습니다. 목사님을 청하기 위해 온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줄을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담임목사님의 부재기간 동안 교회는 정말 의연하고 꾀꾀하게 버티어왔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교회를 더욱 걱정해주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아 헤매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의가 불같이,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젖먹이 아가들부터 초롱초롱한 영유아들과 한창 자라나는 유소년들을 따뜻한 손과 푸근한 마음으로 대하여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에 시달리며 사춘기의 갈등으로 방황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목사님의 아들딸같이 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꿈과 이상을 드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을 느끼며 좌절하고 힘에 부쳐워하는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노년의 성도들을 영적 자녀같이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부모님을 대하듯 공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원들을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교회의 비전을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완전히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역시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목사님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 성도들의 환영 인사 ③-정관집사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봉사부에서 커피 봉사하는 정관이라 합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께서 주님의교회로 오신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교회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함께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이곳에서 평안히 빠르게 적응 하시길 바랍니다.

해야할 많은 일들 중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숭배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이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국수와 김치가 저는 아주맛있다고 생각되는데 목사님은 어떠실런지요...

의/료/선/교/팀

## 수련회



지난 6월 5일~6일 양일간에 의료선교부에서는 부원과 가족 40여명이 용인에 있는 대웅경영개발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5일 밤의 바비큐 파티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와, 교회와 의료선교부를 위한 중보기도회로 첫날 일정을 마쳤고, 둘째날은 정희성목사님의 “내 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되라”는 권면 말씀과, 손영익 집사가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발표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이어 변춘석 집사가 준비한 캄보디아, 위구르, 우즈베키스탄 등 하계단기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과 함께 보여주었다. 이어 박호길 장로님의 우리교회 의료선교부의 역사와 최근 시작한 미술인 전문 선교회의 활동을 소개함으로 금년도 의료선교부의 수련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 외국인 비전센터 리모델링 감사예배



한편 지난 5월 13일 둘째주일 오후에는 하남에 위치한 외국인 비전센터에서 진료 후, 센터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센터 관계자들과 정희성 목사님과 의료선교부 팀원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드렸다.

그곳은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에서 매월 2주와 4주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다. 센터 사역의 확장으로 인해 노후된 시설로 인한 위험과 모임공간이 부족하였는데 지난 4월말 우리교회에서 공사비를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완성하였었다.

## 외국인 근로자 자녀 미용봉사

특히 지난 주일(6월 10일)진료에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무, 간호팀의 진료팀 20여명과 이정희 집사를 팀장으로한 미용팀 5명이 함께 동행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자녀들의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 주었다.

## 의료선교부 진료안내

우리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매주 2째주에 하남외국인 센터와, 광장동에 위치한 나섬공동체 등 2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진료를 하고 있고, 4째주에는 하남센터에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달에 처음으로 미용팀이 합류하였고, 그 외의 방법이나 진료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기 원하는 교우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기 바란다.

※문의: 의료선교부  
최석주집사011.432.2222(총무)  
김학원집사011.9769.6937

중등1부 '프렌즈 데이(Friends Day)'

중등부  
소식

## 세상에 없던, 세상이 기다리던 Show! 우리의 Show의 주인공은 예수님!



지난 6월 3일, 중등 1부에서는 '프렌즈 데이(Friends Day)' 행사가 열렸다. Friends Day란,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초청주일을 뜻하는 말이다. 프렌즈 데이 행사는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는 기도, 오프닝 쇼(뽕권쇼), 중등1부 영상 소개, 교사들의 폭덴스, 브니엘찬양대의 찬양, 말씀, 위십팀의 위십, 그리고 홍의운 선생님이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177명의 학생들과 33명의 교사들은

중등1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 어떠한 변화와도 타협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문화의 그릇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의 그릇 안에 복음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프렌즈 데이는 교회에 처음 온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준비한 예배이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발로 뛰며 온



열정을 다해 섬겨준 선생님들과 그들의 달란트와 봉사로 예배를 섬겨준 중등1부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임경순 전도사

## ●교회학교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뵈 때 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선생님께선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죠. 이런 선생님께 저는 특별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처음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왔을 때, 친구도 없고 학교생활도 힘든 그런 시기에 선생님께선 저에게 정말 환한 웃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죠.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신 신뢰나 믿음덕분에 제가 이렇게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중학교에 올라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힘들어 할 때 선생님께선 많은 격려와 기도와 가르침을 주셨고 심지어는 신앙심도 얇고 부족한 게 많은 저에게 중등부 회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에 추천해 주셨지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친구관계에 힘들려 좋지 못한 일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던

"정말 환한 웃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죠."

때에 선생님께선 믿음과 기도로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다시 한 번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죄송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배시간에 떠돌고 장난도 많이 쳤고, 중학교 올라와선 운동이나 친구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빠지기도 했고, 선생님께 무례하게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선생님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이제는 많이 고쳐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능력 있는 학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학생으로 남기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조건 없는 그 사랑과 격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열다섯 아기 천사에게 세레 베풀어



정희성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양육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할 것을 부탁했다.

세레가 베풀어지기 전에 윤서준, 전예지의 부모가 간증 및 자녀양육지침서를 읽었고 이들의 고백을 근거로 당회원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레가 베풀어졌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으로 세레받은 아기들을 축복하고, 축도로 당일 모든 행사가 은혜 중에 끝이 났다. 우리교회의 유아세례는 1년에 2번(6월, 12월), 장년세례는 3월, 9월에 교육과정을 거쳐서 행해진다. 기사제공:세레사역팀

## 4교구 구역 연합 야외예배



6월 6일(수) 4교구 전국구 3개 구역(17-19)에서 합동으로 영월 주촌강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30명이 넘는 교우들은 준비해간 많은 음식을 나누며 산에서 부는 바람과 잔잔한 물소리를 벗 삼아 좋은 하루를 보냈다.

신화식 목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서로 구역공부를 하는 시간과 각기 맡은 봉사로 서로 알지 못하며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서로 얘기를 나누며 보다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다. 참여한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는 즐거움과 멋진 자연의 숨결 속에서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였다. 신형섭기자